

광주·전남 수출기업 53% “올 경영·수출실적 악화”

FTA통상진흥센터, ‘수출전망 조사’ 75% “내년엔 더 악화·올해와 비슷” “美 리스크·글로벌 경제 침체 여파” “정책자금 확대·물가 안정 등 절실”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절반 이상은 올해 경영과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7곳 이상은 내년도 수출 실적이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광주·전남 소재 수출기업 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수출전망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8일부터 3주간 진행됐으며, 기업들의 올해 실적, 내년도 전망, 주요 리스크, 애로사항, 정부 지원정책 필요 사항 등을 분석했다.

올해 경영 및 수출 실적에 대해 응답 기업의 과반수(52.6%, 49개사)는 전년도

보다 악화됐다고 답했다. 또 30.5%(29개사)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으며, 16.8%(16개사)만이 경영이 호전됐다고 응답했다.

수출 실적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8.4%(45개사)가 올해 수출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감소 폭은 평균 31%에 달했다.

반면, 수출 실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기업은 29.5%(28개사),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1%(21개사)로 조사됐다.

내년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1.1%(38개사)가 올해보다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34.7%(33개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였다. 다만, 24.2%(23개사)는 내년 경영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일부 긍정적인 전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년도 수출 전망에서도 43.2%(40개사)가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

으며, 31.6%(30개사)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25.3%(24개사)는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했다.

수출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강화와 대미 무역 압박 △세계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갈등, 한반도 긴장 증가 등으로 무역과 경제 상황 악화 △각국의 수입 규제 강화, EU CBAM 등으로 수출 부담 증가 △고객사 발주 감소, 주요 기업 실적 악화, 신규 개발품목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으며,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무역 장벽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주요국 경기 위축(49.5%, 46개사)’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어 ‘유가·환율 상승(14.7%, 14개사)’, ‘미국 대선 결과(12.6%, 12개사)’, ‘중국 경제 성장 둔화(9.5%, 9개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8.4%, 8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 상승(31.6%, 30개사)’, ‘신규 판로 개척 애로(21.1%, 20개사)’, ‘물류비 상승(14.7%, 14개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12.6%, 11개사)’과 ‘대출금리 부담(6.3%, 6개사)’ 등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비용 절감 및 긴축경영(34.4%, 54개사)’을 가장 주된 대응 방안으로 선택했으며, 이어 ‘거래처 관리 강화(22.3%, 35개사)’와 ‘거래처 다각화(20.4%, 32개사)’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52.6%, 49개사)’와 ‘환율 및 물가 안정(50.5%, 47개사)’이 꼽혔으며 이외에도

‘신용시장 개척 지원(30.5%, 29개사)’, ‘수출규제 완화(15.8%, 15개사)’, ‘수출 정보 및 정책 안내(12.6%, 12개사)’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주요 영향으로는 ‘관세 증가(52.6%, 49개사)’와 ‘달러 가치 상승(50.5%, 48개사)’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친환경 정책(9.5%, 8개사)’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조병 광주FTA통상진흥센터 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과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 등 대내외적 요인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 소용량 제품 선택 광주신세계가 제한된 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용량 트렌드에 발맞춰 작은 크기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본관 2층에 자리한 ‘이솝’의 대표 제품은 핸드 밤이다. 75ml 크기와 엠버 보물(500ml) 두 종류로 판매되고 있으며, 간편한 휴대성으로 인해 소용량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훨씬 많다. 같은 층에서 만날 수 있는 ‘키엘’은 아보카도와 참깨 오일을 함유해 건조한 손을 부드럽게 가꿔주는 얼티미 스트렝스 핸드 살브를 선보인다. 150ml 크기 제품보다 75ml 소용량 제품의 판매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니치 향수의 대표 브랜드 ‘바이레도’도 블랑쉬 핸드크림을 30ml 소용량으로 판매 중이다. 어디에나 손쉽게 들어가는 작은 크기에 보습효과와 향기 지속력이 좋아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광주신세계, ‘메리 위글리마스’ 프로모션

브랜드 ‘위글리글’ 할인 혜택 광주신세계는 브랜드 ‘위글리글’이 최대 81%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메리 위글리마스(MERRY WIGGLEMAS)’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위글리글은 플레이스팟(구 신관)에 오락실의 재미를 담은 아케이드 매장 콘셉트로 만들어졌으며 300여개가 넘는 아이템으로 고객들에게 재미있는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위글리글은 9일부터 29일까지 전 상품을 대상으로 최대 81% 할인과 구매 금액 대별 선착순 선물을 증정한다. 이번 프로모션에서 최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펄프 행주세트로 정가 1만5000원에서 81%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광주신세계 위글리글에서 인기 있는 품목 중 에투웨이 보냉백(M)은 2만6000원에서 41%

전남 가구소득 8위... 첫 한자릿수 순위 진입

통계청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6609만원...전년대비 8.5% 증가

전남지역 가구소득이 전년대비 8.5% 증가하는 등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 순위인 전국 8위를 기록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의 가구소득은 6609만원으로, 6093만원을 기록한 전년대비 516만원 오르며 8.5%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6.3%보다

2.2%p 웃도는 것으로,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 지역의 근로소득 또한 국고예산 증가에 따른 연관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전년대비 올랐다.

전남 가구자산은 3억3891만원보다 2695만원 늘어난 3억6586만원을 기록하며 8.0% 증가했으며, 이는 부동산이 6.4%로 크게 오른 것이 한몫했다.

가구부채의 경우 5471만원으로 5146만원이었던 전년대비 325만원, 6.3% 늘었다. 이는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한 대출 등 담보대출이 일부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부채 규모는 여전히 전국에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가구부채는 9128만원이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도 전남도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어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구 부채는 줄고, 자산과 소득은 늘도록 다양한 경제정책과 도민 행복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금호타이어, 美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대상

‘글로벌 톱 100’ 부문 5위도

금호타이어의 ‘2023년 기업보고서(Annual Report, 애뉴얼리포트)’가 미국 LACP에서 주관하는 ‘2024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의 애뉴얼리포트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9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스포츠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권위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연맹인 미국 LACP(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가 주관하는 글로벌 어워드, 2001년부터 전세계에서 제출되는 애뉴얼리포트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서로 경쟁해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경연대회다. 해당 어워드는 매년 대상·금상·은상 등급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20개 국가,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금호타이어의 2023 애뉴얼리포트는 금호타이어의 비전인 ‘당신의 스마트모빌리티 파트너(Your Smart Mobility Partner)’에 따라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고 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이해관계자 및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첫인상, 내용 구성, 디자인, 창의성, 메시지 명확성, 적합성 총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 획득, 100점 만점에서 99점을 획득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또 금호타이어는 대상 수상과 함께 LACP가 전체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100개 보고서를 선정하는 ‘글로벌 톱 100’에서도 5위를 차지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사장은 “금호타이어는 세계적인 권위의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타이틀을 얻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금호타이어가 지향하는 가치와 재무활동의 성과를 애뉴얼리포트에 잘 반영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애뉴얼리포트, 경영설명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고객 가치’를 최고로 실천하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소진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심사 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소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심사

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갱신 심사는 소진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용상태, 내부심사, 경영검토, 평가 및 개선 프로세스 등 심사계획서에 명시된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진공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

충돌방지법 등 준수 의무사항에 대해 매년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및 윤리 관련법의 제·개정 시 법규준수평가표를 작성, 내부 지침 및 요령 등을 개정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또 전사적으로 사업법 부패 리스크를 파악해 관리대장을 만드는 리스크 매핑으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 리스크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됐다.

나다운 기자